



金富成  
<가톨릭醫大>  
内科 교수

- ◆ 최근 위 내시경의 발달로 위점막의 조직학.....◆
- ◆ 적 변화가 상세히 규명됨에 따라 만성 위염.....◆
- ◆ 의 발생빈도가 높아졌으며 만성 위염의 재검.....◆
- ◆ 토가 활발히 진행되나 아직도 만성위염의 발.....◆
- ◆ 생기전에 대해서는 학설이 구구하다.....◆

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양에서 B형이 절대적으로 많다. 한편 위축성 변화의 위 점막 분포상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상행성이이라고 하며 유문동으로부터 분분부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했다. 최근 만성 위염의 기전이 Campylobacter 같은균이 관여한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

근래 각종약물의 남용 및 오용 무절제한 음주 및 과음, 식중독, 기호품의 남용, 각종 스트레스등 물리적, 화학적 자극 인자들로 인한 만성 위염의 빈도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자극적인 특이한 식습관 및 음주 및 흡연과의 관련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만성 위염의 원인은 잘모르나 만성위염의 본질은 위축성 변화로 보고 이와같은 변화는 불가역성 변화로 보는 견해가 많다. 위축성 위염은 면역학적으로 자가면역이 관여하는 A형과 관여하지 않는 B형으

류법은 가장 일반적이나 아직 비후성 위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만성위염과 연령파의 관계를 보면 종래 표층성 위염은 저년층에서 비교적 많고 고령자가 됨에따라 노화 현상의 하나로써 위축성 위염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증상은 노년층에서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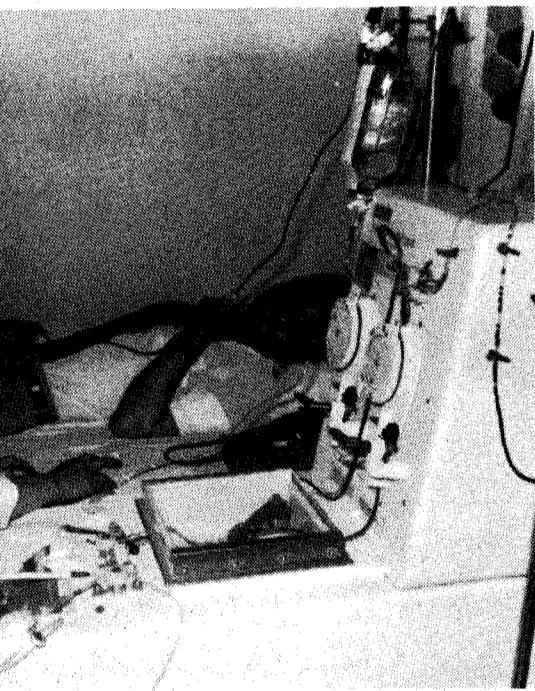
첫째는 만성 위염의 발생기 전을 잘 모르므로 적절한 치료대책이 없고 둘째로 대부분의 만성 위염 환자는 증상이 없으며 셋째로 치료로서 위의 위축이나 악성빈혈, 암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만성 위염의 치료는 내과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과적 치료의 목적은 증상을 없애고 위염을 완전히 치유함에 있다. 이런 목적으로 식이 요법과 약물요법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여러가지 새로운 약물이 개발되어 좋은 효과를 보인다.

## 알콜·카페인 함유된 음료속·흡연은 禁忌 식사후 1~2시간에 제산제 投與효과 커

또한 십이지장액의 역류도 관여하며 악성빈혈의 소지가 있는 가족에서 위축성 위염의 보고가 많다. Schindler는 만성 위염을 표층성 위염, 위축성 과형성 위염 및 비후성 위염으로 나누었으며 비후성 위염을 산성, 간질성 및 증식성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분

별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복부 통증, 복부 팽만, 트림등이 보다 현저하다고 할 수 있으며 위내시경 검사 및 조직 검사로 정확한 진단 하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만성위염의 치료에서 대부분의 환자는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



◆만성위염은 위  
용종, 양성위궤양,  
위암과 관련되었으며,  
특히 위축성  
위염이 있을 때  
정상인보다 20배  
이상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모든 환자  
는 위암의 조  
기발견을 위해 자  
주 추적검사를 해  
야한다. (사진은  
기사 특집사실과  
관련없음)

### 1. 식이 요법

식이요법의 원칙은 위산 분비에 대한 자극이 약하고, 위내의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강하며, 화학적 기계적 또는 물질적 자극이 적고, 영양분 수요에 충분한 칼로리와 조직의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음식을 소량씩 자주 줘야 한다. 특히 알코올, 카페인 함유 음료수(커피, 콜라, 차등) 자극적인 조미료 및 약물 그리고 흡연은 금해야 한다.

### 2. 제산제

제산제는 액체가 정제보다 중화력이 많고 약물을 최적시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식사 후 1~3시간에 투여하는 것이 좋다.

### 3.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요법이 악성빈혈 환자에서 면역기능을 억제시켜 위점막 변화를 호전시킬 수 있으나 장기간 남용하면 위험하다.

### 4. 비타민

비타민 B<sub>12</sub>의 치료는 악성빈혈환자에서 정상 세포 증식과 성숙을 야기하며 정상 점막을 보이기도 한다.

만성 위염은 연령 증가와 더

불어 증가하는 것으로 과정은 지속되는 표층성 위염의 반수 환자는 변화 되지 않으나 나머지는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된다.

만성 위염은 위용종, 양성위궤양, 위암과 관련되었으며 특히 위축성 위염에 있을 때 정상인보다 20배 이상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모든 환자(특히 위축성 위염)는 위염의 초기 발견을 위해 자주 추적 검사를 해야한다.

또한 악성빈혈(특히 A형) 환자에서 위암의 위험도가 3~4배 높다.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악성빈혈이나, 위축성 위염의 정기적인 검사가 요구되며 특히 상부 위장관 증상, 원인 모르는 체중감소, 빈혈, 잠혈적인 장관 출혈 등이 있을 때는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요구된다. 추적검사의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 혹은 상부 위장관 촬영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위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서는 대변내 잠혈반응을 반복 검사 해야 한다.

# 한국에도 이제 맥주효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 맥주효모제품

(제조허가번호 : 보사부 제27호)  
(품목허가번호 : 보사부 제1호)

- 체질개선 식품 전문생산업체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3-43층

### 맥주효모는

- 간장괴저예방인자
- 혈당조절인자(GTF)
- 빌암억제인자
- 위장강화인자
- 고혈압조절인자

를 갖고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리포마® 는

맥주효모의 고유한 쓴맛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제(錠劑)로 만든 영양등식품입니다.

### (주) 한국바이오에너지

맥주효모제품 리포마®의 생산 및 보급에 대한 공지와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